시니어가 값을 만드는 플랫폼

다섯 가지 생각 가운데 돈 내는 사람이 확인된 것은 무엇인가?

은퇴한 세대가 값을 만드는 길

H1 · 낯선 견적서를 받았을 때

오래 해 본 사람에게
내 편에서 확인받는다

H2 · 주된 일터를 떠난 뒤

가게를 차리지 않고
경험으로 일거리를 얻는다

H5 · 부모님과 떨어져 살 때

감시하는 느낌 없이
평소처럼 지내시는지 안다

가설별 구매 동기는 검증 전 · 인구·지출 통계는 배경 근거

작게 시작한다면 무엇부터 검증할까

견적서 봐 주기를, 볼 것을 미리 정해서 먼저 팔아 본다.

순서·가설	결정 근거	남은 핵심 질문
1 · 견적서 봐 주기	집 고치기 피해가 통계로 확인됨 · 견적 검토 상품이 5만 원에 올라와 있음(게시 가격)	볼 것을 미리 정해 주면 견적서 받은 사람이 돈을 내는가
2 · 은퇴 경력자의 일거리	55~79세의 69.2%가 계속 일하기를 원함	현장 경력자가 건당 보수를 받고 실제로 맡는가
3 · 서로 가르치기	시니어 진행 모임이 회당 3만 원에 올라와 있음(게시 가격)	가르치고 배우는 양쪽이 모두 참가비를 내는가
4 · 부모님 끼니 챙기기	부모를 부양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씀	반찬 가게와 손잡은 배달에 자녀가 돈을 내는가
5 · 부모님 안부 센서	안전 지원에 돈을 낼 뜻이 있다는 응답	부모가 설치에 동의하고 자녀가 두 달째에도 내는가

해결하려는 일의 다섯 가설

사는 사람, 일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부모를 챙기는 사람이 서로 다르다.

가설	상황	이루려는 일	돈 내는 사람
H1 · 견적서 봐 주기	인테리어 · 이사 · 중고차처럼 큰돈이 드는 낯선 거래를 앞둔 사람이 업자의 견적서를 받았을 때	이 견적의 값과 항목이 적절한지, 빠진 것은 없는지를 그 일을 오래 해 본 사람에게 내 편에서 확인받고 싶다	견적을 받은 본인
H2 · 은퇴 경력자의 일거리	주된 일자리를 그만둔 50~60대 기술 · 전문직이 다음 일을 찾을 때	가게를 차리지 않고, 해 온 일의 경험으로 내 시간에 맞는 작은 일거리를 얻고 싶다	일거리를 맡기는 사람(수수료) 또는 일거리를 얻으려는 전문가(가입비)
H3 · 서로 가르치기	시니어는 요즘 것(AI · 예매 · 유행)이 낯설고, 젊은 세대는 살림과 일 경험이 아쉬울 때	내가 잘하는 것을 알려 주고, 상대가 잘하는 것을 배우며 서로 쓸모를 느끼고 싶다	배우는 사람(참가비)
H4 · 부모님 끼니 챙기기	부모와 자녀를 함께 챙기는 50~60대가 따로 사는 부모님의 끼니가 걱정될 때	내가 매번 가지 않아도 부모님이 제대로 드시고 잘 계신지 같이 챙기고 싶다	자녀(50~60대)
H5 · 부모님 안부 센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자녀가 며칠 연락이 닿지 않거나 문득 걱정될 때	부모님을 귀찮게 하거나 감시하는 느낌 없이, 평소처럼 지내시는지 알고 싶다	자녀

낯선 거래에서 피해가 꾸준히 난다

이사 · 중고차 · 집 고치기 모두 공식 접수 건수가 있다.

거래	확인한 숫자	기준
이사	603건 → 785건 → 961건	2023 → 2024 → 2025년 피해구제 신청
중고차	330건 가운데 80.0%가 고지와 실제 상태가 다름	2021~2023년 피해구제
집 고치기(리모델링)	1,206건 가운데 부실시공 33.7%, 계약불이행 33.0%	2017년 1월~2020년 3월 피해구제

손님이 확인되는 쪽은 볼 것이 정해진 서비스

견적서 봐 주기도 볼 것을 미리 정해서 팔아 본다.

견적서 검토 상품 · 후기 13건

크몽에 올라온 인테리어 견적 검토 상품 하나. 도면 · 견적서 검토 상담 50,000원. 후기 수는 판매 건수가 아니다.

새 아파트 입주 전 점검 · 122,603세대

홈체크가 밝힌 누적 점검 세대. 34평형 259,000원. 회사가 스스로 밝힌 값이다.

중고차 구매 동행 · 7.5만 건

카바조가 밝힌 누적 검수 건수. 회사가 스스로 밝힌 값이다.

일하려는 고령층은 많고, 경력을 첫째로 꼽는 사람은 일부다

계속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열에 하나가 과거 경력과의 연관성을 꼽았다.

항목	값	누구 가운데
앞으로도 일하기를 원함	69.2% (1,178만 2천 명)	55~79세 1,701만 7천 명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	평균 53.0세	그만둔 사람
일자리 선택 기준 1위 — 일의 양과 시간대	30.8%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원하는 근로 형태 — 시간제	48.3%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일자리 선택 기준 — 과거 취업과의 연관성	10.3% (121만 2천 명)	일하기를 원하는 사람

H1 · 견적서 봐 주기

이 견적의 값과 항목이 적절한지, 빠진 것은 없는지를 그 일을 오래 해 본 사람에게 내 편에서 확인받고 싶다.

구분	내용
지지 근거	이사 피해구제 2025년 961건. 중고차 피해의 80.0%는 고지와 실제 상태가 다름. 리모델링 피해 1,206건 중 부실시공 33.7%, 계약불이행 33.0%.
반대 근거	크몽 견적 검토 상품은 50,000원에 후기 13건. 리모델링 피해의 65.7%는 500만 원 이하 공사. 서울시 무료 전월세 계약 도움서비스 2025년 이용자 2,959명.
아직 모르는 것	견적을 봐 주는 일에 돈을 낸다는 직접 근거가 없다. 법으로 어디까지 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

H2 · 은퇴 경력자의 일거리

가게를 차리지 않고, 해 온 일의 경험으로 내 시간에 맞는 작은 일거리를 얻고 싶다.

구분	내용
지지 근거	55~79세의 69.2%가 계속 일하기를 원함. 일자리를 그만둔 나이 평균 53.0세. 원하는 근로 형태는 시간제 48.3%.
반대 근거	과거 취업과의 연관성을 꼽은 사람은 10.3%. 탤런트뱅크는 2024년 6월 전문가 프로젝트 수행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힘. 고령층 디지털정보화 수준은 일반 국민의 71.8%.
아직 모르는 것	기술 · 전문직만 떼어 낸 수치가 없다. 플랫폼으로 일거리를 받겠다는 뜻인지 모른다.

H3 · 서로 가르치기

내가 잘하는 것을 알려 주고, 상대가 잘하는 것을 배우며 서로 쓸모를 느끼고 싶다.

구분	내용
지지 근거	생성형 AI를 안 쓰는 60대의 25.3%가 이용 방법을 몰라서라고 답함. 노인의 67.2%가 정보화 사회 적응이 어렵다고 답함. 오뉴 독서 살롱 회당 30,000원.
반대 근거	65세 이상 자원봉사 참여율 2.5%. 서울시간은행 시범 초기 줄 도움 370여 건, 받고 싶은 도움 약 250건. 한지붕세대공감 2022년 계약 66건.
아직 모르는 것	시니어가 가르치고 싶어 한다는 조사, 젊은 세대가 시니어에게 배우고 싶어 한다는 조사를 찾지 못했다.

H4 · 부모님 끼니 챙기기

내가 매번 가지 않아도 부모님이 제대로 드시고 잘 계신지 같이 챙기고 싶다.

구분	내용
지지 근거	부모와 자녀를 함께 부양하는 비율 1960년대생 15%, 1970~74년생 25%. 일본 와타미는 하루 약 24만 식을 배달한다고 밝힘.
반대 근거	고령친화 식품 규모는 식품 통계에 고령자 소비 비중을 적용한 값. 부모 부양을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답은 29.8%에서 16.7%로 감소.
아직 모르는 것	자녀가 부모 식사 배달에 내는 돈을 센 국내 통계를 찾지 못했다.

H5 · 부모님 안부 센서

부모님을 귀찮게 하거나 감시하는 느낌 없이, 평소처럼 지내시는지 알고 싶다.

구분	내용
지지 근거	65세 이상 가구주 1인 가구 247만 6천 가구. 일본 조사에서 저항감은 마이크 4.83, 카메라 4.79, 문 · 창 센서 3.56.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인의 44.3%가 돈 내고 쓸 뜻이 있다고 답함.
반대 근거	정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5년 276,954가구. 삼성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는 가족의 활동을 알림. 일본 자녀의 82.5%가 걱정되지만 그 가운데 78.3%는 서비스를 알면서 안 씀.
아직 모르는 것	자녀가 낼 금액을 물은 국내 조사를 찾지 못했다. 국내 안부 센서의 가입 가구 수를 찾지 못했다.

카메라보다 문 센서가 덜 싫다

덜 싫다는 것이 산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 · 혼자 또는 부부만 사는 65세 이상 400명 · 저항감 1(낮음)~7(높음)

안부를 살피는 대안이 이미 있다

센서만 따로 파는 사업의 순서를 뒤에 둔 까닭.

정부 응급안전안심서비스

2025년 노인 · 장애인 276,954가구에 활동량감지기와 출입감지기 등을 설치해 운영.

삼성 스마트싱스 패밀리 케어

가전 · 모바일 기기를 연동해 가족의 활동 알림과 일정 · 위치 정보를 공유. 이용자 수는 기사에 없다.

일본 마모리코 · 조지루시

냉장고 문 등에 붙이는 센서 마모리코는 2027년 2월 사업 양도를 공지. 조지루시 전기포트 서비스는 약 15,000명이 계약했다고 회사가 밝힘.

규모는 가설마다 세는 것이 다르다

금액 · 사람 수 · 가구 수가 섞여 있어 더하지 않는다.

가설	규모	무엇을 센 값인가	읽을 때 주의
H1 · 견적서 봐 주기	약 318억 원(추정 · 누적)	입주 전 점검 회사 한 곳의 누적 점검 세대 × 34평형 가격	견적 검수 시장의 크기가 아니다
H2 · 은퇴 경력자의 일거리	121만 2천 명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중 과거 취업 연관성을 꼽은 사람	직종을 가르지 않았다
H3 · 서로 가르치기	통계를 찾지 못함	—	참여 인원 · 지출 통계가 없다
H4 · 부모님 끼니 챙기기	3,892억 원	고령친화 급식 서비스업(시설 급식)	가정 배달 식사의 크기가 아니다
H5 · 부모님 안부 센서	약 221만 가구(참고)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공공서비스 노인 대상 가구를 뺀 값	기준 연도와 대상이 다른 참고 계산이다

시장 지출과 새 상품 결제를 구분한다

새 상품에 돈을 낼지는 어느 가설에서도 확인하지 않았다.

가설·결제자	근거 수준	확인한 내용
H1 · 견적을 받은 본인	게시 가격만 확인	견적 검토 상담 50,000원, 현장 방문 확인 100,000원. 입주 전 점검 34평형 259,000원
H2 · 일을 맡기는 사람 또는 전문가	가까운 시장의 실제 지출	숨고 운영사 2025년 영업수익 약 719.8억 원. 전문가 멤버십은 11월 27일부터 월 199,000원으로 인상 예정
H3 · 배우는 사람	게시 가격만 확인	오뉴 독서 살롱 4회 120,000원, 정원 6명
H4 · 자녀	가까운 시장의 실제 지출	부모를 부양하는 1960년대생은 월 73만 원을 부모에게 씀. 그리팅 웰스 한 끼 6,000~7,000원대
H5 · 자녀	내겠다는 응답	안전 지원이 필요하다는 노인의 44.3%가 돈 내고 쓸 뜻. 조지루시 초기 5,500엔에 월 3,300엔

볼 것을 정하고, 팔아 보고, 쓸모를 확인한다

H1의 첫 실험을 네 단계로 본다.

점검표를 정하고, 팔아 보고, 쓸모를 본다

① 점검표

견적서에서 볼 것
20가지를 먼저 정한다

② 제안

견적서 받은 20명에게
5만 원에 제안한다

③ 결제

5명 이상이
돈을 내는가

④ 쓸모

의견서를 보고
고친 항목이 있는가

H1 첫 실험의 제안 순서. 인원과 값은 작성자의 제안이며 실험 결과가 아니다.

가설마다 첫 실험을 제안한다

인원 · 가격 · 조건은 제안이며 실험 결과가 아니다.

가설	시험 가격	통과 조건	중단 조건
H1 · 견적서 봐 주기	1건 5만 원.	2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결제하고, 결제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의견서를 보고 업체와 고친 항목이 있다고 답한다. 결제가 2~4명이거나, 5명 이상이 결제했어도 고친 항목이 있다는 답이 절반에 못 미치면 점검표를 고쳐 다른 20명에게 한 번 더 제안한다.	결제가 1건 이하이면 이 방식은 멈춘다. 다만 거절 이유의 대부분이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면 된다"였다면, 처음 집을 고치는 사람처럼 물어볼 사람이 없는 이들에게 한 번만 더 제안해 본다.
H2 · 은퇴 경력자의 일거리	검토 1건에 보수 3만 원.	10명 가운데 3명 이상이 한 달 안에 2건 이상을 맡아 끝낸다.	맡겠다는 사람이 1명 이하이거나, 거절 이유의 대부분이 "책임질 일이 생길까 봐"이면 멈춘다.
H3 · 서로 가르치기	1인 1만 원.	양쪽에서 각각 5명이 참가비를 내고,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다음 모임 참가비를 미리 낸다.	어느 한쪽이 3명을 못 채우거나, 다음 모임 참가비를 미리 낸 사람이 2명 이하이면 멈춘다.
H4 · 부모님 끼니 챙기기	주 2회 4주에 12만 원(반찬값 포함).	30명 가운데 5명 이상이 결제하고, 결제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다음 4주도 결제한다.	결제가 1건 이하이거나, 부모가 받기를 거절한 경우가 결제의 절반을 넘으면 멈춘다.
H5 · 부모님 안부 센서	기기 3만 원에 월 3,300원.	3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결제하고, 그 가운데 4곳 이상에서 부모가 동의해 설치를 마친 뒤 두 달째에도 요금을 낸다.	결제가 2건 이하이거나, 부모가 설치를 거절한 경우가 결제의 절반 이상이면 멈춘다.

어디까지 확인했나

인용이 원문에 있다는 것까지 확인했다.

출처 37개

통계 · 보고서 · 공시 원문 23, 기사 7, 사업자 자료 7. 게시일이 원문에 없는 출처 6개.

인용 55건 대조

초안을 쓴 AI와 다른 회사의 AI가 원문과 맞춰 봤고, 원문보다 넓게 쓰인 27건을 고쳤다.

직접 물은 조사 0건

설문 · 인터뷰는 하지 않았다. 새 상품의 지불 의사는 확인하지 않았다.